

해월의 삼경론과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비교연구

유정원

가톨릭대학교

주 제 분 류

생태신학, 환경철학

주 제 어

해월, 삼경사상, 프란치스코 교종, 회칙 「찬미받으소서」,
생태론

요 약 문

본 연구는 현대의 생태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 동학
과 그리스도교의 생태사상을 고찰한다.

먼저 동학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해월 최시형의 '삼
경론'을 통해 경천-경인-경물사상의 참 뜻을 살펴본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연
구하여 성서의 창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생태 영성
에 대해 다룬다.

해월의 삼경론을 통해 인간과 동식물뿐 아니라 무생
물에도 한율(天)의 생명력이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경
천-경인-경물을 통해 참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자연을
파괴해온 인간중심주의의 성서 해석적 오류를 바로잡
는다. 또 착취와 남용으로 신음하는 지구와 가장 파괴
된 곳에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통합생태론
과 영성을 숙고한다.

이로써 오늘날 전 지구적 생태 위기 앞에서 지구 공
동체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주적인 친교를 이루기
위한 인간상과 사회 윤리를 제시한다.

접 수 일 : 2018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9일

생명연구 제50집 2018년 11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0, Nov 2018, pp. 91~125
<https://doi.org/10.17924/solc.2018.50.91>

해월의 삼경론과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비교연구*

유정원
 가톨릭대학교

I. 서론

1. 연구 배경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쟁과 승자독식, 일중독과 피로에 내몰린 이들의 고통을 적절히 치유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느라, 참된 인간적 삶과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무의미하게 지내다가 우울증이 깊어지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소통하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7S1A5B5A07060739).

지 못하는 자폐아나 고아처럼 정신적 공허와 소외감에 내던져져 있다.¹⁾ 이 비인간적이고 비생명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현대인은 스스로 참된 인간의 길을 걸으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잊었던 존재의 뿌리이자 정신적 고향을 돌아보고 근저에서 인간 삶의 실마리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 모든 위기의 총집합체와 같은 생태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인간의 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상생과 공진화²⁾를 추구하는 사회를 모색할 것이다. 그리하여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회 윤리를 근현대 종교사상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선말 외세가 밀려오고 신분제도가 붕괴되던 시기에 우리 문화와 생존기반을 비판 성찰하고 후천개벽을 제창한 동학사상과 오늘날 급격한 생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이를 해결해나갈 방법을 제시하는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가르침을 비교 고찰할 것이다.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을 주장한 해월의 ‘삼경론’과 프란치스코 교종의 두 번째 회칙인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계 문명의 폐해가 극을 달리는 현재, 무분별한 환경파괴 및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사회와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과 사회윤리를 궁구해본다.

1) 박경미,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녹색평론사, 2010 참조.

2) 한살림 모임, 『한살림 선언: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1989, 73-75, 81쪽 참조.

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해월의 삼경론과 프란치스코 교종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시한 신-인간-자연세계에 대한 관점을 고찰한다. 먼저 한국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온 무속 신앙 및 유불선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통합한 동학의 2대 교주 해월의 삼경론과 생활실천을 다룬다. 이어서 2015년에 발표한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에 나오는 그리스도교 성서 본문의 생태신학적 해석과 통합생태 영성을 살펴본다. 그 다음 두 생태사상의 교차점을 숙고하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인간과 사회 모습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1년에 천도교 측에서 간행한 『천도교 경전』의 「해월신사법설」을 원 자료로 삼경론의 본뜻과,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밝히는 생태신학적 관점을 추출할 것이다. 둘째, 해월의 삼경론과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를 다룬 연구 자료들을 고찰하고, 해월과 프란치스코 교종이 제안한 생태사상과 실천의 교차점을 추출하여 건강한 생태적 인간상과 생태윤리를 모색한다. 셋째, 물질지상주의에 사로잡힌 현대 자본주의 첨단 기계문명이 초래해온 죽음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갈 하나의 시도로 물(水)에 대한 해월과 프란치스코 교종의 입장을 밝히겠다.

II. 해월 최시형의 삼경론

해월(1827-1898년)은 동학의 2대 교주로서 한국 전통의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 사상과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사상³⁾을 발전시켜 삼경론을 주장한다. 삼경(三敬)이란 경천-경인-경물, 즉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공경하고 세상만물을 공경하자는 제안이다.⁴⁾ 이것은 각기 다른 세 가지 공경이 아니라, 하늘(天)에서 시작하여 사람(人)을 넘어 사물(物)까지 공경해야 참된 공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부연하면, 하늘(한울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세상과 만물도 공경하기 마련이라는 의미다.⁵⁾

1. 삼경 사상

해월은 1872년 1월 5일 49일간의 기도를 마친 뒤 ‘대인접

3) 시천주사상은 『용담유사』의 「교훈가(敎訓歌)」에 따르면 “한울님을 믿어 몸에 모시는 것”이다.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사람 속에 신이 내재함을 함축한, 한울님과 인간이 동체(同體)라는 뜻이다.

4) 신창호·석창훈, 「서양의 배려윤리 비평과 해월의 삼경사상에 대한 교육사상적 조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4권, 2015, 142쪽. “경은 의식을 집중시켜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는 주일무적의 상태로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이 없고서는 올바른 행위뿐 아니라 학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 김찬호 외, 『선배수업』, 서해문집, 2017, 87쪽. “경은 내면의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내면과 대화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존경하는 거죠.” 여기서 내면의 나를 해월의 삼경론에 비추면, 한울님을 품은 나이자 만물을 통해 길러지고 만물을 살리는 나다.

5) 제갈덕주, 「동학의 통합적 상상력과 논리구조에 관한 의미론적 접근: 최시형의 삼경사상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36호, 2015, 258쪽 참조.

물(對人接物)’이라는 제목으로 법설을 한다. 바로 전해인 1871년에 영해에서 벌어진 변란⁶⁾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동학이 일대 탄압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이때 해월은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사람을 대하는 곳에서 세상을 기화할 수 있고 물건을 접하는 곳에서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니,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 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 가르치고, 삼경에 대해 말하였다.

사람은 첫째로 경천(敬天)을 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 이 선사의 창명하신 도법(道法)이다. 경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한울은 진리의 충(衷)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인(敬人)이니 경천은 경인의 행위에 의지하여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는 경물(敬物)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에 이르지 못하고, 나아가 물(物)을 공경함에 이르러야 천지기화(天地氣化)의 덕에 합일할 수 있다(『해월 신사 법설』, 삼경 3).

해월은 수운 최제우(1824-1864년)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받아들여, 무궁한 한울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양천주(養天主) 사상으로 발전시킨다. “한울을 양(養)한 자에게 한울이 있고 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한울이 없다.” 시천주의 ‘모심(侍)’을 우주만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구현하는 ‘키움(養)’의 실천으로 발전시킨 양천주는, 인간과 천지만물 속에

6) 1871년 3월 10일에 동해안 영해에서 동학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다. 16개 지역에서 이필제의 주도로 동학도 500 여명이 밤중에 영해 읍성을 점령했고, 그 배후에는 해월과 동학 지도부가 있었다.

서 어떻게 생명을 돌보고 살려야 할 것인지 밝혀준다.⁷⁾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키우는 것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道)에 의하여 한울을 키우게 된다... 종자를 심지 않는 자,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하더냐(『해월신사 법설』, 양천주).

해월은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고(事人如天), “만물이 한울이며 만사가 한울(物物天 事事天)”⁸⁾이라고 설파한다. 경인(敬人)하여 세상 사람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경물(敬物)하여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이로움을 구하고자 하였다. 해월은 사람만이 한울님을 모신 존재가 아니라 천지만물 또한 한 울님을 모신 존재이며, 심지어 무생물인 사물을조차 한 울님을 모신 존재로서 나와 한 몸이라고 자각하였다.⁹⁾ 한 마디로 이 관점은 범재천론(汎在天論)이다.¹⁰⁾

이처럼 해월은 만물에 천(天)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고, 이 천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첫째, 천(天)을 인격화한다. “사람이 다른 사물(物)을 먹음은 이천식천(以天食天)이다.¹¹⁾ 그러니 모든 이는 한 생물도 무고히 해하지 말라. 이는

7) 이정희,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동학학보』 제15호, 2008, 171-172쪽 참조.

8) 『해월신사 법설』, 이천식천 1.

9) 이정희, 2008, 173 참조.

10) 이것을 기준 연구자들은 범천론(汎天論)이라고 본다(문영석. 「해월 최시형의 사상 연구: 신관·인간관·자연관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3호, 2002, 356쪽; 신일철, 「최시형의 범천론적 동학사상」, 『승산박길진박사고희기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이리: 원광대출판국, 1984; 「최해월의 범천주의 세계관」, 『한국사상』 24집, 1998). 엄밀히 말해서 모든 것 자체가 천/한울님이기보다는 모든 인간과 만물과 만사에 지기/한울이 내재해 있다는 뜻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범재신론(汎在神論)에 벼금가는 ‘범재천론’이라고 쓰겠다.

한울님을 상함이니, 대자대비하여 조화의 길에 순옹하라.” 둘째, 천(天)을 비인격화한다. “모든 만물은 유일한 지기(至氣)¹²⁾로부터 나온 것이며, 따라서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닌 것이 없다.”¹³⁾ 인격적 한울님이든 비인격적 지기든, 천은 모든 사람과 생명체와 사물을 속에 내재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생명, 어떤 사물을 대하든 그 안에서 천(天)을 만나고 모시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해월의 가르침이다.

“도는 먼저 대인접물(待人接物)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사람을 모시는(侍) 곳에서 세상을 氣化할 수 있고 물건을 대하는(接) 곳에서 천지자연의 理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¹⁴⁾

“접물(接物)은 우리 도의 거룩한 교화(敎化)이니, 제군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무고히 해치지 말라. 도 닦는 차례는 천을 경하고 인을 경하고 물을 경하는 것에 있나니, 사람이 경천할 줄은 알되 경물할 줄 모르고, 경인할 줄은 알되 경물할 줄 모르니, 경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인한다 해도 아직 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¹⁵⁾

“이천식천은 천지의 대법이라 만물이 또 하나의 동포이

11)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즉 사람 안에도 하늘이 내재해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안에도 하늘이 내재해 있으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늘이 하늘을 먹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12) 동학의 至氣는 단순한 물질적 본체로서의 기운이 아니고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우주의 궁극적 본질을 의미한다. 우주만물은 공통원리를 지닌 하나의 영체(靈體)이자 하나의 생명체라는 의미의 지기다(임운길 「동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세계관」,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1996, 184쪽).

13) 차옥승, 『천도교, 대종교: 한국인의 종교 경험』, 서광사, 2000, 39쪽.

14) 이돈화 편, 『천도교 창건사』 2,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16쪽.

15) 이돈화 편, 1933, 17-18쪽.

며 만물이 또 한울의 표현이니 사물을 공경함은 한울을 공경함이며 한울을 키우는(養) 것이니, 천지신명이 사물과 더불어 나아가는지라, 제군은 사물(物)을 먹는 것을 천을 먹는 줄로 알며 사람이 오는 것을 하늘이 오는 줄로 알라.”¹⁶⁾

여기서 해월은 인간과 사물이 모두 천을 모시고 있다는 만물일체적 관점¹⁷⁾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월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관계를 사물에까지 확장한다.¹⁸⁾ 동학사상에 따르면, 기(氣)는 세상만물을 이루는 원인이고 만물은 부단한 기화 작용을 통해 상호의존하고 개입한다. 따라서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 및 사물들과 동떨어진 채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살리고 도와준다.¹⁹⁾ 다 같이 일기(一氣)의 소산이며 기화 작용에 의해 서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무생물까지도 한울님이 깃들어 있는 신령한 존재다.

해월은 하늘의 ‘해와 달’, 숲속의 ‘새소리’ 등 자신이 접한 일상의 모든 것이 한울님의 덕화(德化)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 설파한다. “사람만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비롯한 만유 역시 먹고 입는다.” “숲속에서 우는 새 역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여 천지만물 전체가 한울님을 모신 유기적 존재임을 강조한다.²⁰⁾ 이것은 물질-정신을 차별하는 이원론에 따라 자연을 인간문명의 도구로 삼고 훼손

16) 이돈화 편, 1933, 18쪽.

17) 최민자, 「우주진화적 측면에서 본 해월의 ‘삼경’ 사상」, 『동학학보』 제3호, 2002, 282-293쪽 참조.

18) 박경환, 「동학의 신관」,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동학가회, 2001, 186쪽.

19) 『해월신사 법설』, 이천식천.

20) 윤석산, 『일하는 한울님 - 해월 최시형의 삶과 사상』, 모시는사람들, 2014, 46-47쪽.

해온 서양의 근대적 세계관과는 사뭇 다른 사상이다.²¹⁾

2. 경물 실천

이처럼 한율님을 모신 인간은 한율님이 깃든 세상만물과 이어져 있기에, 늘 한율님과 함께 한율님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한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자신을 둘러싸고 연결된 모든 것은 한율님이 깃든 존재이기에 귀하여 여기고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이러한 생활태도가 한 마디로 ‘공경’의 실천이기에, 삼경사상은 하늘을 비롯하여 사람들과 무기물에까지 연장된 ‘공경’ 철학인 셈이다.²²⁾ 해월은 ‘십무천’, ‘내수도문’, ‘심고’이라는 구체적 생활지침을 세워, 이 철학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도록 가르친다. 먼저, 천(天)에게 하지 말아야 할 십무천(十母天) 강령을 보자.

- ① 천(天)을 속이지 않는다. ② 천 앞에 오만하지 않는다.
- ③ 천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다. ④ 천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 ⑤ 천을 일찍 죽이지 않는다. ⑥ 천을 더럽히지 않는다.
- ⑦ 천을 굽기지 않는다. ⑧ 천을 파괴하지 않는다.
- ⑨ 천을 혐오하지 않는다. ⑩ 천을 속박하지 않는다.

여기서 천은 당연히 삼경사상에 기초한 한율님과 한율님을 모신 인간과 만물, 곧 하나의 기(一氣)로 일체(一體)를 이루고 있는 천지자연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²³⁾ 언뜻 보기에도 추

21) 우수영, 「문순태 『타오르는 강』에 나타난 영산강의 의미 : 해월 삼경사상의 구현을 통한 새로운 민중」, 『동학학보』 제34호, 2015, 291쪽 참조.

22) 이정희, 2008, 174쪽.

상적 단언으로 보이는 이 강령은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생명과 사물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지 규범이다. 해월은 이 금지 규범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내수도문’과 ‘심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특히 ‘내수도문(內修道文)’은 한 가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주부들,²⁴⁾ 당시 안살림을 책임진 며느리들에게 가르친 소중한 일상지침이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가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것이 한울님을 키우는 것(養天主)이라는 동학 본연의 핵심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성의 지위를 직시하게 한다.²⁵⁾ 해월은 ‘내수도문’을 통해서 여성 펁박의 명예를 벗기고, 한울님을 모신 귀한 존재임을 깨우치고 존중받는 길을 열어주었다.²⁶⁾

1) 부모님께 효를 극진히 하고, 남편을 극진히 공경하며, 내 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하인을 내 자식 같이 여기며, 육축(소 말 돼지 양 닭 개)도 다 아끼고 나무의 생순을 꺾지 말며, 부모님이 분노하시거든 성품을 거슬리지 말고 웃으며, 어린 자식은 치고 울리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를 치는 것

23) “한 생물도 무고히 해치지 말라. 이는 천주를 상하는 것이다.” (『해월신사법설』, 천지부모); “모든 물건이 시천주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이 이치를 알면 산생은 금치 아니해도 자연히 금해지리라.” (『해월신사법설』, 대인접물).

24)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니라” (『해월신사법설』, 부부화순).

25) 윤노빈, 「동학의 세계사상사적 의미」, 『한국사상: 최수운연구』 12, 1978, 304-305쪽.

26) 『해월신사법설』, 부인수도; 김용환, 「해월의 삼경사상에 나타난 공공철학의 정신」, 『동학학보』 제24호, 2012, 22-25쪽 참조; 박용옥, 「해월 최시형의 근대 지향적 여성관」, 『한국사상』 24집, 1999, 78-87쪽 참조; 이정희, 2008, 181-182쪽 참조; 정정숙, 「해월사상과 에코페미니즘」, 『동학학보』 제9권 2호(통권 10호), 2005, 429-431쪽 참조.

은 곧 한율님을 치는 것이니, 천리를 모르고 아이를 치면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니 부디 집안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화순하기만 힘쓰시오. 이같이 한율님을 공경하고 효성하면 한율님이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나니, 부디 한율님을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 2) 가신 물이나 아무 물이나 부을 때는 멀리 뿌리지 말고, 가래침을 멀리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고, 침과 코가 땅에 떨어지거든 닦아 없애고, 또한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물을 멀리 뿌리면 곧 천지부모님 얼굴에 뱉는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조심하십시오.
- 3) 잘 때 ‘잡니다’ 고하고,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고하고, 물 길러 갈 때 ‘물 길러 갑니다’ 고하고, 방아찧으려 갈 때 ‘방아 찢으려 갑니다’ 고하고, 정하게 다 찢은 후에 ‘몇 말 몇 되 찢었더니 쌀 몇 말 몇 되 났습니다’ 고하고, 쌀그릇에 넣을 때 ‘쌀 몇 말 몇 되 넣습니다’ 고하십시오.
- 4) 먹던 밥은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국도 새 국에 섞지 말고, 먹던 침채(김치)를 새 침채에 섞지 말고, 먹던 반찬을 새 반찬에 섞지 말고, 먹던 밥과 국과 침채와 장과 반찬 등절은 따로 두었다가 시장하거든 먹되, 고하지 말고 그저 ‘먹습니다’ 하십시오.
- 5) 조석 때는 새 물에 쌀을 다섯 번 씻어 앉히고, 밥해서 풀 때는 국이나 장이나 침채나 한 그릇 놓고 고하십시오.
- 6) 금간 그릇에 먹지 말고, 이 빠진 그릇에 먹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삼시를 부모님 제사와 같이 받드십시오.
- 7) 일가 집이나 남의 집에 볼 일이 있어 가거든 ‘무슨 볼

일 있어 갑니다’ 고하고, 볼 일 보고 집에 올 때 ‘무슨 일 보고 집에 갑니다’ 고하고, 일가나 남에게 무엇이든 줄 때면 ‘아무것 줍니다’ 고하고, 일가나 남이 무엇이든 주거든 ‘아무것 받습니다’ 고하십시오.

1~2조목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라는 대인접물을 다루고 있다. 1조목은 해월의 삼경사상을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 간단명료하게 밝힌다. 부모와 자식 관계, 주인과 하인 관계, 사람과 동물(가축) 관계를 다룬다. 특히 어린이도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때리거나 울리지 말라고 당부한다.²⁷⁾ 2조목은 사람과 뭇 생명의 삶터인 땅을 부모로 여기고, 더러운 오물을 함부로 흘뿌리지 말라고 당부한다. 우리가 밟고 쓰레기를 버리는 땅은 온갖 생명을 살게 하고 먹게 하고 길러주는 너른 품이라고 가르쳐준다.²⁸⁾

4~6조목은 절도 있고 위생적으로 식사를 하라고 당부한다. ‘이천식천’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밥 한 그릇에는 생명의 근원인 한울님(天, 至氣) 자체와 한울(天地萬物)의 조화 및 노동하는 한울(人)의 창조행위가 들어 있다.²⁹⁾ “밥 한 그릇에 모든 세상 이치가 담겨 있다.”³⁰⁾ 밥 한 그릇, 쌀 한 톨 안에는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대자연의 순환과 수많은 곤충

27) 이것이 후에 해월을 이은 의암 손병희의 사위인 방정환에게서 꽃을 피운다. 방정환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딸과 결혼하면서 손병희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1920년 일본 도요대학에서 아동문학과 아동심리학을 공부했으며, 이듬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정하고, 세계명작동화집 『사랑의 선물』과 순수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8) 해월은 땅을 소중히 하기를 어머니 살갗같이 하라고 가르친다(『해월신사법설』, 성경신).

29) 차옥승, 2000, 45쪽 참조.

30) 『해월신사 법설』, 천지부모, 만사지 식일완(萬事知 食一碗).

및 미생물의 협동, 숭고한 인간 노동이 어우러진 ‘우주 진리’를 품고 있다.³¹⁾ 해월은 이 우주의 이치를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알려준 것이다.

3과 7조목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자신 안에 계신 한울님에게 아뢰는 심고(心告)에 대해 당부한다. 3조목은 집안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7조목은 집밖으로 외출하거나 외부인들과 관계 맺을 때에 해당하는 지침이다.

이 ‘내수도문의’ 심고 지침은 통상심고(通常心告)로, 식고(食告)와 출입심고(出入心告)가 있다. 식고는 식사를 할 때와 마쳤을 때 하는 일종의 감사식고로서, 밥 한 그릇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천지자연과 수많은 사람들의 덕에 감사드리는 의식이다. 출입심고란 외출할 때와 귀가해서 한울님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밖에 의식심고(儀式心告)가 있다. 9시 청수, 시일식, 경축식, 관혼상제, 성묘 등 각종 의식 때 한울님께 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고를 중시하는 까닭은 각 사람이 모시고 섬기는 한울님께 자신의 행실을 알림으로써 한울님의 감응을 받고자 해서다. 한울님의 감응이야말로 천지조화의 생명활동에 참여하는 양천주 생명살림의 실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²⁾

이상에서 해월이 경물하기 위한 생활지침으로 제시한 ‘십무천’, ‘내수도문(內修道文)’, ‘심고’를 살펴보았다. 해월은 이를 통해 온 우주에 한울님 기운이 가득 차 있음을 깨우치고 공경하도록 가르쳤다.³³⁾ 해월은 풀벌레도, 날짐승도, 나뭇가지 하나도 모두 각기 命이 있으므로³⁴⁾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

31)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2016 참조.

32) 이정희, 2008, 175-186쪽 참조.

33) 제갈덕주, 2015, 281쪽 참조.

고, 어린아이가 나막신을 신고 땅을 마구 내디디며 달리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땅이 느끼는 아픔을 느꼈다.³⁵⁾

III.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공동가정(our common home)을 돌보는 삶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린 프란치스코 교종의 두 번째 회칙을 통해, 현재 가톨릭교회에서 제시한 하느님-인간-세계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현대의 전 지구적 생태위기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주요 입장은 담고 있는 이 회칙은, 우리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 우리의 공동가정³⁶⁾인 지구가 우리가 입힌 상처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1-2항)는 호소로 시작된다. 본 연구는 특히 회칙 제2장과 제6장에서 생태적 인간상과 생태윤리를 살펴볼 것이다.³⁷⁾

1. 여전한 인간중심주의

프란치스코 교종은 오늘날 생태위기가 인간의 망각에서 비

- 34) “제비 알을 깨치지 아니한 뒤에라야 봉황이 와서 거동을 하고, 초목의 움을 꺾지 아니한 뒤에라야 산림이 무성하리라.” “날짐승 산천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길벌레 삼천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해월신사 법설』, 대인접물).
- 35) 최준식,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35-37쪽 참조. 최준식은 이것을 해월이 자의식을 소멸시키거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종교적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비평한다.
- 36) 박준양,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나타난 새로운 신학적 전망들에 대한 성찰 - 조직신학적 접근」, 『사목연구』 37, 2016, 55쪽 참조.
- 37) 제2장 창조의 복음(62~100항), 제6장 생태교육과 영성(202~246항).

롯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
다. 우리 자신이 대지의 먼지라는 것을(창세 2,7 참조), 우리
자신의 몸이 바로 그녀의 것들로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녀의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녀의 바다에서 생명
을 받고 생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항) 그리
고 그리스도교 성경을 통해 창조의 복음³⁸⁾을 찾아 나선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인간을 우월감과 혼란에 빠뜨린
두 관점이 나온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창세 1,27-28)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창세 2,15) ‘지배’ 와 ‘돌봄’이라는 창조주 하느
님의 두 명령 가운데서 ‘지배’를 선택한 유대-그리스도교
와 서구문명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우월
권을 하느님에게 승인받았다고 오해하고, 현재의 생태위기 상
황을 조장해왔다.

교종은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대지는 우리가
있기 이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입니다” (67항)라고 밝히며 인간이 마치 하느님인양 모든 피
조물을 지배하다 못해 함부로 파괴해온 오만방자한 태도를
단호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 (례위 25,23)임을 밝히며, 폭압적인 인간중심주의(a
tyrannical anthro-pocentrism)를 배격한다(68항).³⁹⁾

38) 회칙 제2장. 최승정, 「『찬미받으소서』의 성서신학적 이해」, 『사목연구』 37, 2016, 11-42쪽 참조.

39) 69항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왜곡된 인간중심주의 비판이 나온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께서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이밖에 탈출기(23,12)와 신명기(22,4,6), 시편(104,31; 136,6; 148,3-5), 예언서(예레 32,17.21; 이사 40,28b-29)를 통해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자기 생명을 돌보려면 자연을 향해서 형제애-정의-충실함을 가지고 다가 가야 하고(70항),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옆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이라고 말한다(72항).

한편, 교종은 하느님의 창조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선물⁴⁰⁾ 이자 우리 모두를 우주적 친교로 부르는 현실이라 보고,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와 의의를 인정(76항)하라고 권유한다. 이러한 논지로부터 교종은 그리스도교에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하느님-인간-세상의 위계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78항과 79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순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발견하게 된다.

취약한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인간은 능력을 지도하고 개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식들을 고안해야 합니다(78항).

우주는 개방적이며 상호 소통하는 체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초월성에 개방되어

지니기를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 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제3장에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온 재앙과 결과(115~121항)’ 이 있다.

- 40)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하느님이 창조를 스스로 자축하기 위한 선물, 인간에게 주신 선물,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 문맥상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 하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해석을 하게 한다. 즉, 이 ‘창조의 선물’ 개념은 인간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셈이다. 박준양, 2016, 67쪽 참조; 김승혜, 「그리스도교의 창조신앙 · 안식년 · 계약사상의 생태적 조명」,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바오로딸출판사, 2010. 122-151쪽 참조.

있고, 이 세상 전체가 그 초월성 안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79항).

78항은 인간과 교회⁴¹⁾가 취약한 이 세상을 돌보고 인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자연과 분리시켜 인간의 우위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79항은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와 세상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이며 상호소통하면서 초월성 안에서 발전하기에, 인간 존재와 역할을 세상만물과 구별하고 부각시키지 않는다. 교종은 하느님의 창조세계에서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의 우위성에 입각하여 피조물들을 돌보는 청지기로 보려는 관점과, 인간은 그저 하느님 창조세계에 속한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을 나란히 대비시킨다.

이 두 관점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회칙 83항은 모든 피조물이 초월적 충만함 속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 인도하는 존재라고 밝힘으로써 인간의 우위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칙 90항에서는 하느님과 세상 사물들 사이의 무한한 거리와, 인간과 세상만물의 유한성과 취약성을 지적한다.⁴²⁾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인간은 세상의 일부로서 모든 피조물과 서로 연결되어 우주적 가족(universal family)을 이루고 있기에, 그들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고 말이다.

교종은 이 모범을 예수에서 찾는다. 예수는 창조와 완전한

41) 윤종식, 「『찬미받으소서』의 전례적 이해와 제안」, 『사목연구』 37, 2016, 134-162쪽 참조.

42) 엘리나 라시다, 「『찬미받으소서』 발전의 새로운 개념」, 『사목연구』 37, 2016, 82-84쪽 참조.

조화 속에서 살았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 까지 복종하는가?” (마태 8,27) 예수는 세상과 동떨어져 삶의 즐거움을 혐오한 고행자가 아닌,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마태 11,19)였다. 예수는 목공 노동자였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마르 6,3) 역사적 예수는 인간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98항).⁴³⁾

이 부분에서 본 연구자는, 예수가 창조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례로 선택한 것의 의외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종은,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자연현상(바람과 호수)을 복종시키는 예수를 부각시킨다. 이것은 자연만물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에 해당하는 사례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 친교를 이룬 사례로도 부적합하다고 본다. 사실, 이 복음구절은 예수가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분이자,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능가하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본문이기 때문이다.⁴⁴⁾

본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이 세상에 육화하신 역사적 예수가 목공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기에 인간의 노동이 거룩하고 특별해졌다는 관점도, 인간적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것을 인간중심적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복음구절(마태 8,27; 11,19; 마르 6,3)에서 자연만물과 인간의 우주적 친교를 유추해내기는 어렵다.

43) 한편 99항에서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모든 창조의 목적이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강조한다(콜로 1,16.19-20; 요한 1,1-18; 1코린 15,28).

44)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2001, 60쪽 참조.

2. 통합생태 영성과 교육

그러나 분명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에서, 이웃의 지평을 세상만물로 확장시킨다. 또 지금 여기를 넘어서서 내일을 바라보도록 요청한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160항)

이 질문은 자연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뭇 생명과 인간의 참된 의미, 사회생활의 근본 가치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성찰해보도록 권유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과 뭇 생명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지니는가? 왜 인간은 현재의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태위기에 놓인 지구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교종은 이러한 근본 문제들을 숙고하고 삶으로 응답하라고 요청한다.

과연 피조물을 존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동료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고, 결국은 사회악을 개선하려는 실천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91항). 더욱이 진심으로 우주적 친교에 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와 정의와 창조보존’을 위해 힘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⁴⁵⁾

그런 사람이라면 착취와 남용으로 신음하는 어머니 지구와 가장 파괴된 땅에서 고통 받는 가난한 이들의 탄식에 귀를

45) 조현철, 「불교 인드라망을 통해 본 통합생태론」, 2015년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에코포럼 발제문 참조.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피조물과 연대하고 세상에 개방하는 우주적 친교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망한다. ‘인간이라는 집단적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만큼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가 격심해져 왔기에, 이를 자각한 생태적 인간은 자기중심주의⁴⁶⁾에서 벗어나 파괴된 자연환경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사육 없이 돌보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204-205항 참조).⁴⁷⁾

이런 생태적 인간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종은 제안한다. 과학적 정보 및 생태의식과 환경재앙 방지를 위한 교육은 물론이고, 개인주의와 무한 진보, 소비주의와 자유 시장 경쟁을 부추긴 근대사상 및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간은 다른 이들과 자연만물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하느님의 창조 의지를 파악하여 우주의식을 갖추어갈 것이다(210항 참조).

교종은 우선 각 개인이 ‘훌륭한 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고 쓰레기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215항). 그러나 이런 개인 차원의 미적 감수성 함양은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산업문명과 거대기업에 의해 묵살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보다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온 공동체적인 회심과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219항 참조).⁴⁸⁾

46) 최승정, 2016, 39쪽 참조.

47) 신승환, 「『찬미받으소서』의 탈근대 철학적 특성」, 『사목연구』 37, 2016, 117-118, 124-125쪽 참조.

48) 지구 차원의 생태적 전환과 돌봄을 위해서, 교종은 첫째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이 세상만물에 감사하는 태도와,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 친교로 결합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태도와, 하느님이 주신 역량을 계발하는 태도와,

또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통해서 물질과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인, 예언자적이고 관상적인 생활양식을 권장한다.⁴⁹⁾ “적은 것이 낫다(less is more)”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작은 사물들의 진가를 인정하는 소박함(simplicity), 삶이 부여한 기회들에 감사하는 소박함, 소유한 것으로부터 초탈하게 하는 정신적 소박함, 없는 것 때문에 슬픔에 젖지 않게 하는 소박함에 복귀하는 것” (222항)이다.

교종은 매 순간을 더 기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사물들을 즐길 줄 안다고 말한다. 그들은 집착과 걱정을 덜어내고, 형제적 만남과 봉사에 삶을 할애한다. 음악과 미술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명상하며 만족을 찾는다. 이기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삶이 줄 수 있는 다른 많은 가능성들에서 의미를 찾는다(223항). 건강한 겸손과 행복한 절제를 실천하고(224항) 참된 내적 평화를 추구한다. 그럴 때 모든 생명을 품는 공동가정인 지구 생태를 돌보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갈 것이다(225항).⁵⁰⁾

예수는 우리에게 공동의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 서

인간의 탁월함을 지배의 근거로 보지 않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제안한다(220항 참조).

- 49) 예언서들은 시련의 시기에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관상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찾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전전한 영성이라면 주님의 무한한 힘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며 흡송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해방하고 구하시는 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해방과 창조라는 두 행동방식은 밀접하고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73항 참조); 최광선, 「인간의 행복과 지구의 건강을 위한 생태영성탐구: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전망』 192호, 2016/봄. 124-152쪽 참조.
- 50) 손 맥도나, 이정규 옮김, 『공동의 집: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와 정의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분도출판사, 2017, 24, 203-208쪽; 유경춘, 「사회 교리적 관점에서 본 생태회칙」, 2015년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에코포럼 발제문 참조; 신승환, 2016, 127-128쪽.

로가 형제와 누이임을 알려 주었다. 이것은 우리를 ‘우주적 형제애(a universal fraternity)’로 나아가게 한다(228항). 하느님의 성령은 우주를 가능성들로 가득 채우셨고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언제나 그 핵심에서부터 새로운 어떤 것으로 떠오를 수 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일종의 예술, 다시 말하면 사물들 위에 새겨진 하느님의 예술이다. 하느님의 예술에 따라서 그 사물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⁵¹⁾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태동한 종교인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삼경사상을 생태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해월은 가난한 농민, 화전민으로 흙과 더불어 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만물 속에 한울의 씨앗, 한울 자체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한울과 인간과 자연 및 사물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이 삼경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만물 존중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또 이 사상에는 한울님을 모시고 키우는 이 세상이 무궁한 우주의 대생명이 꿈틀거리는 유기체적 생명공동체임을 깨우치게 해준다.

특히 해월의 경물사상은 참된 생명 살림과 돌봄을 강조한 독보적인 철학이자 대물윤리다. 이를 통해 해월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체 전체와 사물들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키우는 소중한 존재임을

51) 『찬미받으소서』, 78-79쪽.

강조하면서, 만물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⁵²⁾ 이렇듯 그는 세상 모든 존재가 한율님을 섬기고 돌본다는 의미에서 범재천론을 주장하였다.⁵³⁾

앞서 지적했듯이 현대인은 죽음의 문화 속에서 초월 세계나 궁극 존재에 무심한 채 살아가고, 인간관계에서는 가까운 친지와도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며, 자연만물은 인간 이익을 위한 자원 내지 수단으로 취급하여 이기적으로 채취하여 사용하다가 내다버리고 있다. 해월의 경물사상은 특히 무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현대 소비주의 생활방식에 경종을 울린다.

또한 해월의 삼경사상은 오늘날 점점 더 절망적인 생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본받도록 권고하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과 이어져 있다. 천 년 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생태영성과 실천은 우리 자신과 지구공동체의 온전함과 건강을 회복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약한 이들을 돌보는 가장 탁월한 모범이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그리고 진정 통합 생태적인 삶을 산 가장 탁월한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소박함 속에서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 자연과 그리고 자신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며 산 신비가이자 순례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자연에 대한 관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 사회에의 투신과 내적 평화 사이의 유대가 결코 분

52) 이정희, 2008, 187쪽 참조.

53) 윤석산, 2014, 90쪽; 김정의, 「동학·천도교문명의 자연관」, 『문명연지』 4권 제2호, 2003, 78쪽 참조.

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10항)

교종은 본인의 주보성인인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길잡이로 삼아, 하느님과 인간과 세상만물에 대한 생태적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회칙은 그간 잘못 해석하여 현재의 생태위기를 초래해온 성서 본문을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창조주 하느님이 인간과 세상의 주인이심을 명시하고 인간중심주의의 폐해를 비판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서는 안 되고, 세상과 땅을 돌보는 청지기이자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이자 거류민일 뿐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인간은 하느님 창조의 일부로서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우주적 가족 (universal family)을 이루고 있으므로, 세상만물과 친교를 맺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⁵⁴⁾

교종의 이 인간관은 세계관 및 자연관에 반영된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 당신 모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사랑의 선물로 맡기신 것이다. 하느님은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 “보시니 좋았다”고 거듭 축복하셨다. 따라서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느님의 초월적 충만함 속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의 창조의지를 망각해선 한다.

그러나 교종은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인간의 역할과 권한을 부각시킨다.⁵⁵⁾ 통합생태 교육을 통

54) 이 관점은 해월의 삼경사상과 일맥상통한다.

55) 이 관점은 세상만물을 공경하라는 해월의 경물사상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해월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공경을 말하면서, 인간의 사물에 대한 우월성을 경계하

해서 이윤 추구에 사로잡혀 지구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데 여념이 없는 자본주의 문명에 대항하여, 하느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 형제애’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요청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경물사상과 대물윤리를 가르친 동학의 해월과 통합생태 윤리와 영성을 강조한 교종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건강한 생태적 인간상이 상호의존하는 인간(Homo Reciprocus)이자 공생하는 인간(Homo Symbious)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인간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정신적 소외와 정서적 단절감에 빠진 21세기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길이기도 하다.

이제는 더 많은 돈과 물질로 치장하고 소비하도록 몰아붙이는 상업-금융 자본주의에 담대히 맞서서, 사물을 섬기고 공경하며 존중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할 때다.⁵⁶⁾ 그 대안적 삶의 하나로 해월이 가르친 ‘청수(淸水)공경사상’을 전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인은 고래로 새벽에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정성으로 빌었고, 1860년 동학이 창도된 후에는 정화수를 청수(淸水)로 존칭하고 천도교 의식에서 받아들여왔다.⁵⁷⁾

“천지는 한 물 덩어리니라. 한울과 땅이 시판되기 전은
북극 태음 한 물일 뿐이니라.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

고 모심과 키움과 섬김을 강조한다.

56) 러미스, 더글러스, 김종철 옮김, 『경제 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11 참조.

57) 『해월신사 법설』, 천지이기; 계한경, 「나는 물이로소이다」, 『신인간』 601호, 신인간사, 2000, 52쪽.

이니라. 물에는 형상이 없는 음수(陰水, 대기)와 형상이 있는 양수(揚水, 물)가 있느니라. 사람이 음수 속에 사는 것이 고기가 양수 속에서 사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은 음수를 보지 못하고 고기는 양수를 보지 못하느니라.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한 후에야 현묘한 이치를 능히 알 수가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잉태할 처음에는 한 점 물일뿐이요, 한 달이 되면 그 물의 형상이 이슬과 같고 두 달이 되면 그 물의 형상이 한 알의 구슬과 같다. 세 달이 되면 화공현묘조화의 수단으로 어머니 혈기를 받되 태문으로 받아들이는데, 먼저 코와 눈을 이루고 차차 형상을 이루고..."

해월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맑은 물은 누구든 손쉽게 구하여 정성을 다할 수 있다고 보아 맑은 물 한 그릇만으로 동학의 모든 종교의식(儀式)의 제수(祭需)로 간소화시켜서 신앙 대상으로 상징화하고 형상화하여 눈으로 보고 몸에 모셨던 것이다.⁵⁸⁾ 청수를 한울님으로 상징화한 해월의 ‘청수공경사상’은, 세계 곳곳에서 물 분쟁의 조짐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⁵⁹⁾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한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8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물에 대해 강조하여 말한다.

58) 김정의, 2003, 76-84쪽 참조. 최제우가 스스로 지은 호는 수운(水雲) 즉 물구름이고, 최시형의 호인 해월(海月)에도 바다가 들어있어서 두 사람이 물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59) 1992년 11월, 47차 유엔총회에서는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고,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동참하기를 요청하였다.

물은 매우 평범하지만 귀중한 요소입니다.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기초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안전하게 마실 물은 인간 생존에 핵심이며, 그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로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30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은 정화와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 남의 성사인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물은 영원한 삶을 위한 복된 원천입니다...

광대한 물과 그 안의 모든 것(창세 1,20-21; 시편 146,6 참조)이라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선물을 마련해 주신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고, 대양을 땅 위에 옷처럼 덮으신 그분께 찬미를 드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시편 104,6)...

물이 민족들 사이에 분열의 표징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한 만남의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창조주에게 받은 선물, 특히 강과 바다와 대양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자원을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머니이자 누이인 땅과 강물이 더는 아파하며 울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한울님을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색색의 꽃과 풀과 온갖 열매의 싱그럽고 풍성한 아름다움 속에서 뭇 생명과 사물들이 어우러진 생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계한경, 「나는 물이로소이다」, 『신인간』 601, 신인간사, 2000.
- 교종 프란치스코, 박동호 옮김, 『찬미받으소서』, 2015.
- _____,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담화」, 2018.09.01.
- 김용환, 「해월의 삼경사상에 나타난 공공철학의 정신」, 『동학학보』 제24호, 2012.
-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바오로딸출판사, 2010.
- 김정의, 「동학·천도교문명의 자연관」, 『문명연지』 제4권 제2호, 2003.
- 김찬호 외, 『선배수업』, 서해문집, 2017.
- 러미스, 더글러스, 김종철 옮김, 『경제 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11.
- 박경미,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 녹색평론사, 2010.
- 박경환, 「동학의 신관」, 『동학과 동학경전의 재인식』, 동학 가회, 2001.
- 박용옥, 「해월 최시형의 근대 지향적 여성관」, 『한국사상』 24집, 1999,
- 박준양,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나타난 새로운 신학적 전망들에 대한 성찰 - 조직신학적 접근」, 『사목연구』 37집, 2016.

숀 맥도나, 이정규 옮김, 『공동의 집: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와 정의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분도출판사, 2017.

신승환, 「『찬미받으소서』의 탈근대 철학적 특성」, 『사목연구』 37집, 2016.

신일철, 「최시형의 범천론적 동학사상」, 『승산박길진박사고 희기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이리: 원광대출판국, 1984.

_____, 「최해월의 범천주의 세계관」, 『한국사상』 24집, 1998.

신창호 · 석창훈, 「서양의 배려윤리 비평과 해월의 삼경사상에 대한 교육사상적 조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4권, 2015.

엘리나 라시다, 「『찬미받으소서』 발전의 새로운 개념」, 『사목연구』 37집, 2016.

우수영, 「문순태 『타오르는 강』에 나타난 영산강의 의미: 해월 삼경사상의 구현을 통한 새로운 민중」, 『동학학보』 제34호, 2015.

유경촌, 「사회교리적 관점에서 본 생태회칙」, 201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에코포럼 발제문, 2015.9.15. 명동 가톨릭회관.

윤노빈, 「동학의 세계사상사적 의미」, 『한국사상 12: 최수운 연구』, 1974.

윤석산, 『일하는 한율님 - 해월 최시형의 삶과 사상』, 모시는 사람들, 2014.

윤종식, 「『찬미받으소서』의 전례적 이해와 제안」, 『사목연구』 37집, 2016.

이돈화 편, 『천도교 창건사』 2,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이정희, 「동학의 생명원리와 생명윤리」, 『동학학보』 제15호, 2008.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2016.

정정숙, 「해월사상과 에코페미니즘」, 『동학학보』 제9권 2호 (통권 10호), 2005.

제갈덕주, 「동학의 통합적 상상력과 논리구조에 관한 의미론적 접근: 최시형의 삼경사상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36호, 2015.

조현철, 「불교 인드라망을 통해 본 통합생태론」, 2015년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가톨릭에코포럼 발제문, 2015.9.15. 명동 가톨릭회관.

천도교중앙총부 편, 『天道教經典』 제5판,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1.

최광선, 「인간의 행복과 지구의 건강을 위한 생태영성탐구: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전망』 192호, 2016.

최민자, 「우주진화적 측면에서 본 해월의 ‘삼경’ 사상」, 『동학학보』 제3호, 2002.

최승정, 「『찬미받으소서』의 성서신학적 이해」, 『사목연구』 37집, 2016.

최준식,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한살림 모임, 『한살림 선언: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1989.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분도출판사, 2001.

A Comparative Reflection on Haewol's Three Worship Thought and Pope Francis's Encyclical Letter '*Laudato Si'*

You, Jung-won
(Catholic Univ.)

This paper examines the ecological thought of Haewol and Pope Francis.

First, I explored the true meaning of Kyungcheon(敬天-Reverence for Heaven), Kyungin(敬人-Reverence for humanity) and Kyungmul(敬物-Reverence for things/nature). This Samgyeongron(三敬論-Three Worship Thought) was developed by Haewol who achieved a synthesis of teachings of Donghak in a very sincere way.

Haewol, in his Samgyeongron(三敬論-Three Worship Thought), insisted that heaven's life force has positive effects on human, animal, plant and even to the inanimate nature, too. According to him, anyone can grow as a truly authentic person through Kyungcheon(敬天-Reverence for Heaven), Kyungin(敬人-Reverence for humanity) and Kyungmul(敬物-Reverence for things/nature).

Then I examined an ecological spirituality through Pope

Francis' Laudato Si'. This Encyclical Letter presents a profound spiritual reflection on the environment and creation. I pointed out the error of anthropocentric biblical interpretation with the help of Laudato Si'. And I considered that the integrated ecology and spirituality for the earth which has been groaning in suffering and the poor in the destroyed environment.

Finally, as we are on the brink of an ecological mega-crisis, this paper presented desirable human qualities and social ethics for cosmic communion by promoting the global community's responsibility.

Subject: Comparative Philosophy, Catholic Theology,
Science of Religion

Key Words: Haewol, Three Worship Thought, Pope Francis,
Encyclical Letter Laudato Si', Ecology